

정부 '성과급 나눠먹기' 뿌리 뽑는다

행자부, '인사랑' 내 비리 제보 게시판 마련 익명으로 제보 받아 조사·감찰 실시

정부가 이른바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하달된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자치부는 인사조직관리시스템인 '인사랑' 내 성과상여급 비리 제보 게시판을 22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급 비리를 익명으로 직접 제보 받아 조사·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징계 또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해당 기관에는 기준인건비 삭감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2006년 도입된 성과급제는 매년 3월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S, A, B, C 등 4개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과급을 모두 반납해 모은 뒤 같은 금액으로 다시 나누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성과급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홍보 진행 중 남미에서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형규정무부지사 및 유치단(3인)은 브라질 총회 방문 후 인터아메리카 사무국이 있는 파나마로 이동, 인터아메리카 사무국, 파나마 연맹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바로 코스타리카로 이동하여 코스타리카 연맹과 '새만금유치'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공무원의 성과와 무관하게 연공에 따라 평가해야 하나
"국민이 기대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직 사회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종전의 연공급적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나
"민간기업과 같이 매출액·영업이익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관별·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춰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성적인 지표와 목표달성도 등에 따라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 개인별 노력과 기여도 성과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성과급 평가 등급이 연공에 따라 결정되나
"기관별 특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50% 이내)과 부서업무평가, 부서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평가기준·평가지표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C등급 강제탈락은 곧 퇴출제로 봐도 되나
"성과급이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되는 공무원에 인사위원회 등의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재배분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
"헌법상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거둬들이는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과급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반납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
"실제 노동조합에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반납동의서 제출은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즉 이 법령에 따른 징계 처분과 성과급 관련자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차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납 행위가 실제 성립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성과급제로 인해 조직 내 경쟁과 눈치보기가 민연해질 것인 우려가 나온다 직위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인란 시각도 있다.
"성과급제가 정착된 조직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같은 폐단이 없 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라고 본다. 또 업무 성과에는 개인별 고유 업무뿐 아니라 부서 업무도 포함할 수 있어 업무 협조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 재배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바 아닌가
"성과급 재배분은 성과급 평가에서 업무성과가 미흡해 하위등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노조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콜버스', '전북관광패스권' 등이 정부3.0 실천에 앞장 선 정책이라는 평가다.

전북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7일 개최한 '도민과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포럼'에서 전북도의 4가지 정책이 도민 곁에 가깝게 다가간 우수사례로 선보였다.

정부3.0이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과 정부와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도의 정부3.0 우수사례는 ▲전주한옥마을이 정부 3.0과 만날 때 ▲전북관광패스 카드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콜버스 등이 다.

전주한옥마을이 정부3.0과 만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주시의 관광객 수요 분석사업이다. 이사업은 관광객들의 성별·연령·특성·출신지를 물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지역 또는 국가에서 온 방문객인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관광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사업이다.

전북관광패스 카드는 전북도와 14

정부, 중기 취업 청년 2년간 1200만원 자산 형성 지원 제도 도입

정부는 27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대

책 당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1인당으로 한 정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근무하면 자기통장에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

고 하는 것과 달리 통장에 돈이 남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본인 부담이 2년 간 매달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래 정부에서 1년에 3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걸 1년 더 늘려서 600만원을 지원한다.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또 정부가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자기 적립금을 300만원 내면 총 1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년들 계좌에 들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7월부터 시작해 1인당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며 "앞으로 목표는 5만명으로 총 150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KTX 고장 근본적 대책 없이 부품교환만 반복

코레일이 KTX(고속철도차량)의 잦은 고장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된 부품 교환만 반복하는 뻔질 처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코레일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열차운행시 결인·제동 기능을 수행하는 KTX의 주요 부품인 '모터블록'은 2011년 이후 해마다 평균 170회 가량이나 작동이 정지됐다. 이는 KTX의 동력전원을 제어하는 장치인 '인버터'가 합선으로 자주 고장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지난 2012년 프랑스 철도차량전문가 주도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모터블록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도 인버터 부품 등 하드웨어 교환만 반복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KTX의 전동기 과열을 방지하는 냉각송풍기 역시 총 122대 가운데 절반인 60대가 적정 검사주기의 27% 밖에 못 채운 상태에서 잦은 파손으로 교체됐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신뢰성이 확인된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검수 주기를 단축해 예방 차원의 정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부품만 교체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코레일은 또 홈패임 등 KTX의 열차 비위에 발생한 3027건의 결함 중 655건을 즉시 정비하지 않은 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9일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X 유지보수 기준에 따르면 열차 비위의 결함은 탈선의 주요 원인으로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이 확인되는 즉시 비위를 동결시켜 끄는 '삭정'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박용주기자

행자부 개최 '정부3.0 국민체감 토포럼'도, 4가지 정책 우수사례 선보여

도, 4가지 정책 우수사례 선보여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콜버스', '전북관광패스권' 등이 정부3.0 실천에 앞장 선 정책이라는 평가다.

전북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7일 개최한 '도민과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포럼'에서 전북도의 4가지 정책이 도민 곁에 가깝게 다가간 우수사례로 선보였다.

정부3.0이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과 정부와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도의 정부3.0 우수사례는 ▲전주한옥마을이 정부 3.0과 만날 때 ▲전북관광패스 카드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콜버스 등이 다.

전주한옥마을이 정부3.0과 만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주시의 관광객 수요 분석사업이다. 이사업은 관광객들의 성별·연령·특성·출신지를 물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지역 또는 국가에서 온 방문객인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관광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사업이다.

전북관광패스 카드는 전북도와 14

개 시·군이 협업을 통해 전북 대표 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의 관광상품과 대중교통을 패스카드 한장으로 누릴 수 있게 디자인한 사업이다.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자체와 한정 통신사, 교육지원청, 장애인복지관 등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33개의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찾아가는 콜버스'는 이용요금이 낮은 벽지나 오지마을에 노선서비스를 소형합승차로 대체하고 노선과 운행시간을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또한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3.0의 가치 중의 하나인 협업행정을 강조하며 도·정읍시-(주)다인시시간 협업토론회를 개최해 유치기업의 공장신축 등 여러 쟁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협업사례를 소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혜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 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⑤ 차명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땅 스피치노하우" 등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역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